

2008. 6. 16 제193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6. 16 제193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글로벌 사회복지 서비스

문화·디자인

1. 춤의 축제 '빅 댄스'에 유·청소년 참여 장려 (런던)
2. '리우 패스' 하나면 편리한 자유 관광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3. 길거리 공연 자격증, '헤븐 아티스트' (도쿄)
4. 공원의 미래는 '문화의 숲' (도쿄)
5. 지도를 펼치면 건축문화가 보여요 (상하이)

산업·경제

6.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기업 배너광고 게재 (런던)
7. 국제행사와 연계해 기업 지원 (런던)

건강·복지

8. 자선 의료보조금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 (상하이)

목 차

행정·재정

9. 런던-뉴욕 간 도시혁신정책 파트너십 (런던)

방재·안전

10. 반사회적 행동을 막는 전담반 구성 (영국)
11. 공원 및 녹지에 응급피난처 마련 (북경)

도시환경

12. 하수처리 공간 상부를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활용 (도쿄)
13.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에 8년간 27조 원 투자 (상하이)
14. 市 월간 뉴스레터 없애고 나무 1만 그루 심기 (런던)

도시교통

15.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실시간 교통정보창 서비스 (런던)
16. 보행자 안전 강화 종합계획 준비 (워싱턴 D.C.)
17. 5월 한 달은 ‘자전거의 달’ (뉴욕)

도시계획·주택

18. 동양인 거리 ‘리베르다지’ 재개발 계획 (브라질 상파울루市)
19. 교통체증의 중심 지역에서 차 없는 광장으로 변모 (뉴욕)
20. 상업지역과 거주지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상하이)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글로벌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내용>

- 프랑스 대도시 소재 외국인 독신 노동자 숙소의 대명사인 소나코트라(SONACOTRA)는 2007년부터 글로벌 사회복지 주거로서 그 기능을 확장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57년 프랑스 정부는 파리市, 마르세유市, 리옹市 등지의 대도시 재건 및 산업분야에 활동하는 독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인 소나코트라를 설립함.
 - 소나코트라 설립 비용 중 국가가 47%, 기업이 43%를 분담함.
 - 1970년대까지 소나코트라를 이용하는 외국인 독신 노동자는 96%였음.
 - 197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독신 노동자 기숙사 운영체계를 개선함.
 -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외딴 기숙사가 아닌 도시민 생활공간 영역 안에 기숙사를 설립함.
 - 국적이 같은 외국인끼리 거주하게 하는 방법에서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기숙사 운영체계를 전환함.
 - 1990년 중반부터 외국인 독신 노동자용 기숙사에서 모든 외국인을 위한 숙소로 개선함.
 - 객실 위주 기숙사를 4~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식 기숙사로 개조하고, 공동 취사시설과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세탁실, 샤워장,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숙사 형태로 개선함.
 -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귀국하면 프랑스 사람에게 분양함.
 - 이용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차등화함.
 - 200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비함.
 - 1950~196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년퇴직 후 고국으로 귀국할 의사 없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외국인 숙소에서 일생을 마

치길 희망함. 이에 따라 소나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거주환경을 개선함.

- 2007년 창립 50주년이 된 소나코트라는 사회경제 변화 흐름에 따라 독신 외국인 기숙사라는 단순 기능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포함해 확대·개선함에 따라 명칭을 아도마(ADOMA: 사회복지숙소)라고 개칭함.
 - 사회복지시설로 바뀐 아도마는 프랑스에 거주하고자 하는 정년퇴직 외국인 노동자(30%), 주거지를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외국인 및 프랑스 직장인(30%),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는 극빈층(16%), 실업자(20%)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장·단기 거주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도마는 현재 프랑스 대도시에 있는 2000여 개의 외국인 숙소에 포함된 7만여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

<표 1> 아도마(ADOMA) 거주 외국인의 국적 비율 현황

출신국가	비율 (%)
아랍(알제리, 튀니지, 마로크 등)	50.6
아프리카(세네갈, 말리, 꼬뜨 이보아 등)	16.6
프랑스	26.0
기타	6.8

<해설 및 평가>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왔음. 인근 유럽 국가뿐 아니라 아랍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많은 노동 이민자가 1950~1970년대까지 이주해 와 오늘의 프랑스를 이룩하는 데 동참함.
 -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처음 설립된 동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후 파괴된 대도시 재건과 산업부흥에 참여하기 위해 대거 이주해왔으나 대도시의 주거가 파손된 상황에 이농현상까지 겹쳐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 당시 재건 및 도시계획부 장관이 국가와 기업 공동 출자로 소나코트라 비영리 법인단체를 설립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숙소를 마련함.

○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사회복지시설로 재활용함.

- 소나코트라는 청년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의 정년퇴직 이후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음.
- 2007년 소나코트라를 아도마라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 노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노약자를 배려해 객실 기능을 다양화했으며 엘리베이터와 공동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을 설치함.
- 현재는 지방 출신 청년 직장인, 실업자, 극빈자 및 정치 망명자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확대해 재활용하고 있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부재
- 서울은 현재 23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의 산업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재중동포(조선족)임.
- 이들은 서울 곳곳에 20여 개가 넘는 자생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와 재중동포(조선족)는 안전과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낙후된 쪽방과 별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음.
- 외국인 숙소 고급화의 문제점
- 최근 설립된 DMC(Digital Media City) 외국인 숙소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일정기간 파견 온 외국인을 위한 숙소로,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고, 근무지나 일반 활동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벤치마킹 시행방안>

- 외국인 숙소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필요함.
- 서울의 글로벌 정책으로 향후 각 나라에서 많은 근로자가 '서울 드림'이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독신 노동자 숙소와 가족용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함.

- 사회통합을 통한 글로벌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외국인 숙소를 일반 시민생활권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 주거활동 영역 안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외국인 숙소로 일부 분양해 다문화와 공존하는 주거시스템을 개발함.

- 서울에 오래 살아오면서 서울에서 노후를 마치고 싶어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주거시설 공급을 준비해야 함.
 - 1990년대부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향후 찾아올 잠재 외국인 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살 수 있는 사회복지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함.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후 경제활동, 여가, 취미활동, 진료 등의 서비스 시설을 확보해야 함.

<벤치마킹 효과>

- 사회 약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된 정착에 대한 배려는 서울시 향후 외국인이 오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영원이 머물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임.

- 외국인 노동자 가족과 노약자를 배려한 사회복지주거 개발은 현재 어려움에 놓여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휴머니즘 글로벌 정책이 될 것임.
- 서울의 발전과 미래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고 서울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1. 춤의 축제 '빅 댄스'에 유·청소년 참여 장려 (런던)

○ 런던市는 7월 5~13일 개최될 '빅 댄스'(Big Dance) 축제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내놓음. 7월 빅 댄스 축제 때까지 뮤지컬 댄스나 스페인 댄스 등 축제를 알리는 특별 행사가 市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임.

- 2006년 처음 시작된 빅 댄스는 매년 7월 런던 시내 곳곳에서 춤 전문가를 비롯해 남녀노소가 모두 춤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임.

- 댄스교실과 극장, 지역사회센터, 헬스클럽, 거리 등에서 수백 개의 다양한 춤 프로그램이 진행됨.

·대규모 시민이 참여해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2006년에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752명이 한 곡에 맞춰 44개의 다른 춤을 취 세계 기록을 달성한 바 있음.

- 런던市 동북부에 있는 헤이버링區는 관내 학교가 모두 빅댄스에 참여해 모범사례로 꼽혔음. 런던市는 학교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적극 장려하고 있음.

·헤이버링區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 5000명이 빅 댄스 축제에서 15분씩 5개의 댄스 프로그램을 발표함.

(www.cooperscoborn.org.uk/bigdance.html)

(www.london.gov.uk/bigdance)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037)

>>> 전문가 검토의견

-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아이টে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춤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টে이며,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력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요소가 됨.
- 특히 런던市的 예술교육체계는 런던시민이 춤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원하는 종류의 춤을 자유로이 배울 수 있는 ‘라반센터’와 같은 문화 인프라가 풍부히 갖춰져 있기 때문임.
 - 이를 통해 춤을 즐기는 시민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춤 축제가 하루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댄스 동아리나 아마추어 댄스그룹, 문화센터 댄스교실, 아마추어 댄스축제 등과 같이 춤을 매개로 모인 수많은 집단이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으므로, 런던市처럼 대규모 댄스축제를 열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하지만 성급히 또 하나의 축제를 개최하기보다는, 건전한 스포츠와 사교생활의 일환으로 댄스모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2. ‘리우 패스’ 하나면 편리한 자유 관광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관광명소를 구경할 수 있도록 기존 ‘리우 패스’(Rio Pass) 관광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
 - 2006년 8월 처음 선보인 리우 패스는 주로 할인혜택이 가능한 카드로, 국제공항이나 관광 안내소, 호텔 등지에서 무료로 배부됐음.
 - 리우 패스는 리우데자네이루市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주는 일종의 기념선물 개념으로 매달 2만 장이 제작됨.

-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리우 패스는 뉴욕市와 베를린市, 런던市에서 사용되는 웰컴 카드나 시티 패스와 비슷함.
- 외국인뿐 아니라 자국민도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39달러(약 4만 원)임.
- 리우데자네이루市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5군데를 저렴하게 방문할 수 있음.
- 리우 패스로 레스토랑과 가게 등 50곳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www.riopass.com/cariocas/apresentacao.html)

(www.estadao.com.br/suplementos/not_sup16068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카드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도 외국인을 위한 단기 교통카드 제작을 고려하고 있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보다 서울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제휴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관광카드로 단일화하는 것임.
- 여러 장의 카드를 구입할 필요 없이 카드 한 장만으로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함.
- 주요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몇 개 지역을 골라 제공하기보다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카드 판매 및 유통경로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매하고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반정화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jhpan@sdi.re.kr)

3. 길거리 공연 자격증, ‘헤븐 아티스트’ (도쿄)

- 도쿄都는 특정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길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발행하는 ‘헤븐 아티스트’(Heaven Artist) 사업을 실시함.

- 2002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 공간을 이용해 예술가와 도민이 함께 새로운 예술 문화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자격증 발행 대상은 음악이나 퍼포먼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임.
- 활동 가능 장소는 49개 시설 63개소로 우에노 공원과 이노카즈라 공원, 교통기관, 문화시설, 민간시설 등이 있음.

(www.metro.tokyo.jp/INET/BOSHU/2008/05/22i5j2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거리를 활성화하고, 예술의 실험성과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거리예술 지원·육성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97년도부터 거리예술을 지원대상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도쿄都의 헤븐 아티스트 사업처럼 서울시도 ‘청계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거리예술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외에도 스튜디오 시설 대여 등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한줄 뉴스

<북경>

- 전체 의약품회사에 대한 판매전표 추적 시스템 구축 예정
- 현 일기예보 정확도가 76.8%이며, 앞으로 10여 개 기상재해에 대한 예비 경보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
- 쓰촨 지역 지진재해 주민 위해 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4. 공원의 미래는 ‘문화의 숲’ (도쿄)

○ 도쿄都 건설국은 2007년 5월 ‘우에노(上野) 공원 그랜드 디자인 검토회’를 설치하고, 우에노 공원을 ‘문화의 숲’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우에노 공원의 미래상과 10년 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 우에노 공원의 미래상은 ‘일본의 얼굴이 되는 문화의 숲 창조: 세계를 향해 일본의 문화 예술이 시작되는 거점 만들기’임.

- 문화의 숲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시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는 세계적인 문화 전파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문화시설을 제휴하며, 역사 자원을 보존·활용함.

·둘째는 초록의 공간 조성으로, 문화의 숲의 핵심이 되는 광장과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밝고 매력 있는 숲, 서민의 정서가 느껴지는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함.

·셋째는 쾌적한 이용으로, 공원의 얼굴이 되는 입구를 만들어 차량 접근 및 진입방법을 개선함.

(www.kensetsu.metro.tokyo.jp/kouen/grand_design/ueno_cyukan.html)

5. 지도를 펼치면 건축문화가 보여요 (상하이)

○ 상하이市 도시계획관리국은 최근 ‘상하이市 역사문화지역 및 건축물 보호 지도’를 제작·완성함.

- 이 지도에는 상하이市 세계 근대 건축문화 발전 과정과 역사문화 지역, 고딕·바로크·르네상스·스페인·러시아양식 등 다양한 서구 양식의 건축물이 소개돼 있음.

·현재 상하이市에는 국가급 중점 문물 보호지역이 19개소, 시급 문물 보호지역이 163개소, 상하이 우수역사 건축물 632개소 등이 있음.

- 市는 시내 12개소 역사문화풍물 지역의 위치와 632개소 역사보호 건축물의 도로명과 번지를 찾기 쉽도록 지도에 표기함.
- 市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제작을 통해 상하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세계 근대 건축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상하이市の 건축문화 및 역사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함.

(www.zgchb.com.cn/article/2008/0415/article_6844.html)

산업 · 경제

6.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기업 배너광고 게재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업 배너광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수익성을 검토하기로 함.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기업광고 배너가 게재되는 것은 영국 내에서 최초 시도임.

- 교통공사는 시범 광고기업으로 전화번호부 안내 사업자인 Yell.com을 선정하고, Yell.com의 협력사인 netReach의 배너광고를 교통공사 홈페이지 곳곳에 게시하기로 함.
-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검색기능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배너를 게재할 계획임.
- 2005년 교통공사는 국제적인 디렉토리 사업자인 Yell.com과 제휴하고 교통공사 콘텐츠를 Yell.com 디렉토리에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도 높이면서 마케팅 수익도 넓힐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음.
- 런던교통공사는 이번 기업 배너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런던지역 교통부문 예산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고, 온라인 디렉토리 회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보 소통을 꾀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8201.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교통공사의 홈페이지 광고 게재에서 주요 논의점은 다음의 2가지임.
 - 첫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민간기업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공성 침해 여부와 시민 정서에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좀더 충실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는, 시민의 생활정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본을 포함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음.
 - 서울시도, 주택·교통·여가 등의 생활정보 및 GIS 정보 등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좀더 다양한 對시민 서비스 개발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7. 국제행사와 연계해 기업 지원 (런던)

- 런던개발청은, 2012년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체에게 좀더 나은 사업 기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인 'CompeteFo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 런던개발청은 CompeteFor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관련 조직인 올림픽 조직 위원회와 런던市, 영국 전역의 지역개발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함.

- 2008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영세·중소·대기업 등 5600여 개 기업체가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함.
 - 5만여 건의 올림픽 관련 사업 공개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615)

건강 · 복지

8. 자선 의료보조금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 (상하이)

○ 상하이市 자선기금회는 2008년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 자선 의료카드 3만 장을 발급하고, 1500만 위안(약 2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함.

- 자선기금회는 2001년 초, 자선 의료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의료보장 혜택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매년 500위안(약 7만 5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 기금사업을 실시함.

·2006년에는 ‘고령노인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자선의료 기금사업을 활성화해 현재까지 18만여 명에게 7600만 위안(약 114억 원)을 지원함.

·자선 의료카드를 소지한 노인은 19개 지역,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무료이고, 각종 치료비의 60%를 할인 받음.

·각 의료기관은 자금사용 현황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화했고, 개인별 진료 및 약 처방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노인건강 복지에 힘쓰고 있음.

(www.xinhuanet.com/chinanews/2008-05-05/content_13159048.htm)

행정 · 재정

9. 런던-뉴욕 간 도시혁신정책 파트너십 (런던)

○ 최근 런던市는 뉴욕市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두 도시의 혁신적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혁신 교환 프로그램’(Innovation Exchange Programme)을 실시하기로 함.

- 최근 새로 당선된 런던시장을 만난 뉴욕시장이, 혁신적인 도시 정책과 행정 관련 경험을 두 도시가 함께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제안했음.

- 두 도시가 혁신 정책을 교환하게 될 영역은 명성과 신뢰성, 효율성, 교통, 치안, 교육과 기술, 환경정책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며 영향력 있는 정책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833)

10. 반사회적 행동을 막는 전담반 구성 (영국)

○ 영국은 2009년 25만 5000파운드(약 5억 1000만 원)를 투자해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한 ‘실행팀’(Action Squad)을 만들 예정임.

- 실행팀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구성됨.

· 실행팀은 영국 정부가 2007년에 만든 ‘존경 전담반’(Respect Taskforce)과 ‘청소년 전담반’(Youth Taskforce)을 대신하는 것임.

-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의 65%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멈췄다고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밝힘.

·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라고 관계자가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08128)

11. 공원 및 녹지에 응급피난처 마련 (북경)

○ 북경시는 현재 29개 공원 및 녹지에 응급 피난장소를 마련하고 있음. 최근 완소우 공원에 응급지휘센터를 마련하고 응급 피난장소를 제공한다고 북경시 선무區 녹화국 국장이 밝힘.

- 응급지휘센터 안에는 응급 피난 지휘 조정실, 광케이블 통제실, 감독 설비실, 응급 의료 구조실, 응급물자 저장실 등이 있음

· 광케이블실 옥상에 있는 태양에너지 판은 긴급 상황에서 약 3일 동안 북경시 평균 일조량 기준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 평소에는 화단으로 보이지만 화단 아래 북경시 식수원과 직접 파이프로 연결돼 있어 비상 시 유용함.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65416.htm)

도 시 환 경

12. 하수처리 공간 상부를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활용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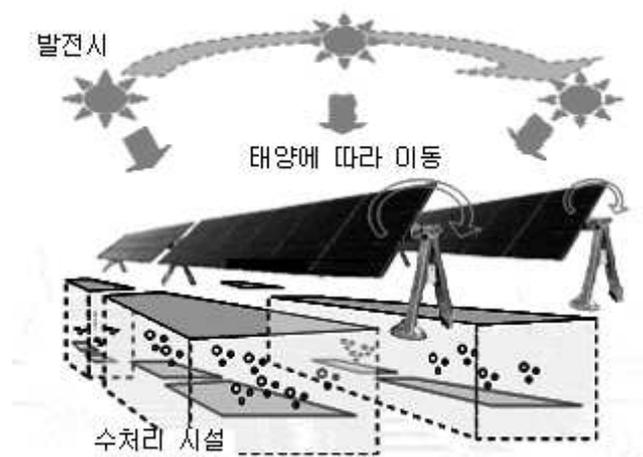
○ 도쿄都 하수도국은 하수도를 이용한 신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동연구를 샤프 주식회사와 함께 가사이 물 재생 센터에서 2008년 5월 15일부터 2009년 3월 말일까지 시행할 예정임.

-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하수도 시설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 최초로 '1축 추적식' 타입과 '박막(薄膜) 태양전지'를 결합한 신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실시함.

·1축 추적식 타입은 태양 방위로 패널이 연동하는 것으로,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

·박막 태양전지는 여름철 패널의 온도 상승으로 발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다결정(多結晶)에 비해 실리콘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비용이 절약됨.

- 실증 실험을 통해 수처리 시설의 전원 계통에 접속하는 안정성과 연간 대기 온도나 입사각 변화에 의한 발전 효율을 주요 평가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5/20i5d400.htm)

13.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에 8년간 27조 원 투자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국가 환경보호 모범도시로 선정돼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음.

- 2000년부터 8년간 1800여억 위안(약 27조 원)을 투자했고, 투자 비중은 매년 GDP의 3% 이상에 달함.

·투자액 가운데 시정부의 투자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함.

·2008년에는 환경보호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탈황설비 및 배수처리 시설 등 환경 관련 설비에 적극 투자할 계획임.

-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 설비와 기술 등 환경 관련 설비 투자에도 적극적임.

·향후 2년간 설비용량 870만kW급 집진기 9개에 배기가스 탈황설비를 설치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예정임.

·시의 근교 40여 개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개조하고, 수자원 보호구역을 재지정할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4/30/content_13126864.htm)

14. 市 월간 뉴스레터 없애고 나무 1만 그루 심기 (런던)

○ 런던市는 市의 월간 뉴스레터인 ‘런던인’(The Londoner)을 폐간함에 따라 290만 파운드(약 5억 8000만 원)의 재정을 절약함. 절약된 재정으로 런던市 거리에 약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임.

- 이번 사업은, 새로 당선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런던市를 더욱 푸르게 만들고 시민의 세금을 가치 있는 곳에만 쓰겠다는 공약의 일환임.

- 나무 1만 그루는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침체 지역의 거리에는 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873)

15.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실시간 교통정보창 서비스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다양한 업체와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창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인 아이구글(iGoogle)을 운영하는 대형 포털 업체인 구글 홈페이지에 런던교통정보 정보창(widget) 서비스를 제공함.
- 구글 홈페이지에서 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정보창을 찾아 실시간 지하철 교통 정보, 인터랙티브 지하철 지도, 여정 검색기능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인터넷 주소를 일일이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클릭할 필요 없이 1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세계 최대 온라인 포털업체인 구글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창을 제공함으로써 런던市 교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한 달 평균 700만 명으로 추산됨.
 - 런던교통공사는 앞으로 구글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도 맞춤형 정보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8203.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위젯(widget)은 이용자와 응용프로그램·운영체제 등과의 상호작용을 좀더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러 경로를 거칠 필요 없이 한두 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임.
- 현재 서울시는 새소식, 입찰공고 등 자주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별로 '자주 찾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통정보의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대중교통 노선 검색 기능과 주요 도로의 CCTV 및 구간속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모바일 포털에서도 서울시의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런던교통공사 예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시민이 원하는 정보에 좀더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방안으로서 민간 포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장무경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16. 보행자 안전 강화 종합계획 준비 (워싱턴 D.C.)

○ 2008년 5월 워싱턴 D.C.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1800만 달러(약 186억 원)가 소요될 이 사업은, 18개월간의 사전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07년에는 25명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고 2008년에는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市 교통국이,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도로 및 보행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준비하게 된 것임.

·이를 위해 보행로 정비, 버스정류장 시설 보완 및 이전, 신호체계와 건널목 정비를 주축으로 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인 카메라와 사고구간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임.

(dc.gov/mayor/news/release.asp?id=1293&mon=200805)

한줄 뉴스

<런던>

- 런던방재청, 소방서 40개소에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시설 갖춰 2007년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상' 수상

- 2008년 6월 1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酒類) 용기 소지 금지

17. 5월 한 달은 ‘자전거의 달’ (뉴욕)

○ 뉴욕시는 2008년 5월 한 달간 ‘자전거의 달’ 행사를 개최함.

- 1990년 뉴욕시가 진행한 일일 행사에서 뉴욕시 자전거 타기 주간 행사를 거쳐 현재는 뉴욕시를 비롯해 뉴저지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전역을 아우르는 행사로 발전함.
-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1만 2000명의 뉴욕시민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임.
- 정부와 자전거 타기 동호회의 노력으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wcbstv.com/sports/bike.month.bicycle.2.717338.html)

도시계획·주택

18. 동양인 거리 ‘리베르다지’ 재개발 계획 (브라질 상파울루시)

○ 상파울루시가 동양인의 거리로 유명한 ‘리베르다지’를 재개발할 계획에 따라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이민자가 자국 문화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고정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 ‘천황로’로 명명된 리베르다지 재개발안의 주요내용은 리베르다지 광장을 비롯해 주요 거리를 새로 보수단장하고 높이 6m의 불상을 세우는 것임.
- 2008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며, 동양인 타운으로 완전히 조성되기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상파울루시는 리베르다지 재개발 주역인 파울로 고바야시 단체와 재개발 관련 협정을 맺음.

·리베르다지 내 상점 정면은 일본풍으로 하고, 등을 달아야 하며, 상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을 보수할 때 도시미화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임.

- 재개발 비용인 5500만 헤알(약 250억 원)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됨.
- 브라질 최대 규모의 민간은행인 브라데스코 은행이 1차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리베르다지 광장 단장에 사용됨.

(www.reporterdiario.com.br/index.php?id=72997)

19. 교통체증의 중심 지역에서 차 없는 광장으로 변모 (뉴욕)

○ 뉴욕市 밋패킹 지역(Meatpacking district)은 원래 도살장과 육류포장 공장이 많은 곳이었으나,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과 디자인숍이 즐비한 유행과 젊음의 거리로 각광받고 있음.

- 市는 최근 이 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전에는 교통체증의 중심이었던 곳을 갠스부르트 광장(Gansevoort Plaza)으로 만들어 공개함.
- 다양한 가로수와 설치미술품, 공공 쉼터, 자전거 주차장 등으로 공공 광장의 모습을 갖추.
- 밋패킹 지역 개발위원회 운영자는 지난 3년간 뉴욕市와 함께 보행자를 위한 광장을 건설했다며, 남은 과제는 가로 시설과 예술품을 미학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힘.

(www.nypost.com/seven/05162008/news/regionalnews/this_plazas_sweet_111090.htm)

한줄 뉴스

<뉴욕>

- 2008년 5월 17~20일 가구와 인테리어의 최신 디자인 경향을 볼 수 있는 '국제 현대가구 박람회'(ICFF) 개최
- 2008년 5월 22~26일 브룩클린 다리 개통 12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 상업지역과 거주지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상하이)

- 상하이市는 최근 와이탄 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상업지역과 거주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하고자 함.
 - 첨단화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예술미를 갖춘 미술관, 개성이 넘치는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을 건설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밀라노市는 공식적으로 상하이 밀라노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두 도시와 여러 기업의 후원으로 상하이 밀라노센터는 이탈리아 최고급 브랜드의 전시 판매장이 될 전망이다.
 - 현재 4개의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 회사가 정식 계약을 맺고 상하이 밀라노센터 입점을 앞두고 있음.
 - 상하이市는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준비함에 있어 도시 정비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리市의 상제리제 거리나 도쿄都의 신주쿠 거리 같은 문화·패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이 개발사업을 상하이市 新문화 지표로 삼을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5/16/comtent_13274394.htm)